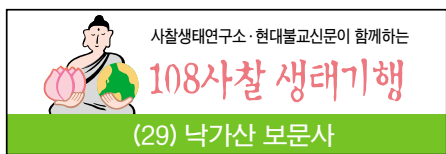




보문사 극락보전 뒤 마애관음보살상 위에 눈썹바위가 감실처럼 아늑하게 드리워져 있다.



낙가산에서 본 보문사.

물속에도 산맥이 있다. 강화도가 건너 보이는 김포 손돌목 바닷가에 서면 거친 여울을 만들며 바다 속으로 잠수하는 용의 등갈기 같은 암맥을 볼 수 있다. 이 암맥은 속리산에서 달려온 한남정맥의 줄기이다. 강화도는 바로 이 한남의 용맥이 건너가 이룬 섬이다. 한 남의 용맥은 황청리에서 다시 바다로 잠수하여 석모도로 건너가 낙가산으로 솟구쳤다.

풍수하는 이들의 말을 빌리면, 한반도는 서쪽을 향해 서 있는 남자의 형상이며, 강화도는 발기한 남근에 해당하며, 석모도는 그 남근의 사정액(精氣極盡 聚注處)과 같다고 한다. 이번 걸음은 관음성지인 낙가산 보문사를 찾아 나섰다.

외포리에서 석모도는 뱃길로 5분여 거리. 배가 선착장을 뜨면 갯가에 있던 거지 갈매기들이 꿈꾸니에 따라붙는다. 관광객들이 심심풀이로 던져주는 새우깡을 얻어먹기 위해서다.

석모도는 해명산 상봉산 상주산의 3개의 산이 있어 행정명을 삼

산면으로 했다. 보문사를 품은 낙가산은 해명산과 상봉산 사이에 위치해 있다. 보문사가 창건된 것은 635년, 금강산에 있던 회정대사가 내려와 변방의 외진 섬에다 보문사를 세웠다.

일주문을 지나면 키 큰 소나무들이 숲길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건강해 보이지는 않는다. 가지에 달린 솔방울 숫자가 많을수록, 크기가 작을수록 건강이 좋지 못하다. 주위의 참나무들과 솔잎혹파리가 소나무를 못 살게 골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 진입로를 넓히면서 목 쇠뿔이 소나무 들레를 아스콘으로 뒤덮어버려서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숲길 가장자리의 석류 사이에는 야생벚꽃이 줄을 이으며 드러내고 있다. 겨울 양식을 저장하기 위해 바쁘다.

개울 건너편 숲은 새들의 마을이다. 큰오색딱따구리 떼까지 직박구리 멧비둘기 박새류 어찌 광... 이 숲에 새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활엽수들이 우점하고, 물 마실 개울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석모도는 쓰레기를 배로 실어다 강화를 소각장에서 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가끔 보문사에서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태우고 있다. 마침 거사 한 분이 숲 속에서 1회용 컵과 비닐 등이 섞인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 쓰레기가 탈 때 나오는 다이옥신은 사람과 동식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수량이 6백년이나 된다는 노향(老香) 한 그루가 석굴법당 앞에 서 있다. 1.7미터 높이에서 용틀임하듯 줄기가 동서로 갈라져 자라 제법 운치를 풍기고 있다. 향나무는 본성이 따뜻한 것을 좋아해서 한강 이북에서는 흔하지 않다. 향나무는 대개 10년이 넘으면 수피가 점차 벗겨지고 1백년이면 줄기의 속이 썩는 부후현상이 나타난다.

객사의 화장실은 근래 새롭게 등장한 포세식(泡洗式)이다. 이를 그대로 물 대신 거품을 이용해 변기를 세척하는 방식이다. 수세식에 비해 물 사용량이 10%에 불과하고, 균이 상하수도 시설이 필요 없다. 설치가 간단하며 냄새가 없고 구더기 등 해충이 생기지 않는다. 비교적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 하수시설이 미비한 산중암자나

토굴에 적합하다.

영험하기로 소문난 마애관음보살상은 극락보전 뒤로 난 4백여 제단 끝에 있다. 보살상이 앉은 인좌신향(眞坐申向)은 만물이 시작되고 맺는 생성의 자리이다. 아들 낳는 데는 보문사 관음보살님이 용하기로 소문나 있다.

보살상 위로는 넓고 편평한 눈썹바위가 마치 감실처럼 아늑하게 덮여주고 있다. 지각변동과 풍화작용에 의해 생긴 이 눈썹바위는 화강암이 양파껍질처럼 떨어지는 판상절리(板狀節理)로 해서 생긴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낙가산 곳곳에서 발견된다.

포세식 변기 사용으로 하수시설 보완

소나무 · 염습지 등 바닷가 특색 또렷

방죽 아래 역세 군락, 식생들에 쉼터 제공

다시 내려와서 등산로를 타면 20여년 거리에서 낙가산 능선을 만난다. 낙가산은 한 덩어리의 거대한 화강암으로, 전형적인 골산(骨山)이다. 입자가 굵은 화강암이 석벽과 암맥과 인과들을 연출해 내고 있다. 등산로도 온통 돌길이다. 때맞춰 입상에는 나도송이풀 미역취 구절초 잔대 참취 짚신나물 산국 고들빼기 들마타리 산부추 맥문동 역세 주름조개풀 닭의장풀 솔새 등의 가을꽃들이 청초하게 피어있다.

나도송이풀은 한해살이 자주색 꽃이다. 잎은 마주나고 세모진 달걀 모양이며,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잎과 함께 부드러운 털이 난다. 잎 뒷면은 자줏빛을 띠며 잎자루가 있다. 꽃은 줄기 위쪽에 있는 잎 겨드랑이에 1개씩 달린다.

미역취는 취나물의 일종으로, 노란색의 들국화이다. 잎은 긴 타원형이며 가장자리에 뾰족한 톱니가 있다. 눈썹바위 주변에 큰평의



보문사 들머리 숲길.



큰평의비름.



낙가산 등산로에 핀 미역취.

바다위에 놓인 생명 공동체

비름이 군데군데 무리지어 피어있다. 들나물과에 속하는 큰평의비름의 키는 50센티 안팎이며, 잎은 환빛이 감도는 연녹색이다.

낙가산 정상에 이르면 바위능선이 해명산-낙가산-상봉산을 잇고 있다. 능선을 걸어 낙가산 정상으로 가다보면 온통 소나무 군락이다. 소나무는 바닷바람을 좋아하는 소교목이다. 줄기는 회갈색이며, 잎은 2-3센티미터 정도로 작다. 잎은 진녹색으로 뾰뾰하며, 10쌍 정도의 잎맥이 뚜렷하다.

일주문 밖 들녘으로 나가면 논과 염습지가 있다. 성냥개비보다 작은 송사리들이 떼 지어 돌아다닌다. 송사리는 염도에 매우 강해서 때로는 바닷물이 올라오는 갯골이나 염전의 수로에까지 서식한다. 송사리는 몸집이 작고 체중이 가볍기 때문에 물 흐름이 느린 곳, 수초가 많은 곳을 좋아한다.

근처 습지에서 생태계의 무법자 황소개구리가 관찰되었다. 바다를 두 번이나 건너, 이 외딴 섬까지 황소개구리가 들어와 있다.

갯벌을 막은 방죽 아래 저수지를 연상케 하는 염습지가 있다. 그 물 위에 낙가산의 푸른 숲과 눈썹바위의 아름다운 풍광이 어려서 영락없는 영지(影池)이다. 그 영지 가장자리로 갯죽방쟁이가 나뭇재 칠면초 등의 염생식물이 자라고 있다. 인적이 드문 이곳은 물새들의 쉼터다. 흰발검둥오리 노랑할미새 일락할미새 물총새 도요새 물떼새 제비 해오라기 백로 등이 평화롭게 어울려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갯벌을 막은 방죽은 조가வு부터 역세 물결이 시작된다. 바닷바람을 맞아서 그런지 운이 날 정도로 툭실하고도 매력적인 역세 군락이다. 누가 일부터 심은 것도 아닌데, 절로 자라서 방죽을 튼튼하게 해주고 있다. 방죽에 올라서면 광활하게 펼쳐진 갯벌 위로 온갖 새들이 가을 무도회를 펼치고 있다. 최근 보문사 앞 갯벌 칠개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은 환경오염에 비교적 강하기 때문이다. 칠개의 등껍질 표면에는 작은 파인들이 나 있다. 썰물이 되면 구멍에서 나와 갯벌 위 유기물을 굶어먹는다.

멀리 주문도와 보름도가 마치 고해 너머 정도처럼 아슬아슬하게 바다 위에 누워있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대한항공 전세기 미얀마 성지순례 6일

부처님 마음(佛心)이 살아있는 때묻지 않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출발일 : 12월 5일 / 12월 13일 단, 2회 "대승항공여행사" 단독 전세기

*** 불교성지순례 - 종전 ₩1,680,000 ▶ ₩1,380,000 (전세기 특별가)**

인천-양곤-파간-만달레이(사가잉)-양곤-인천

*** 문화탐방 - ₩1,450,000**

인천-양곤-해호-파간-양곤-인천








(주)대승항공여행사 (www.dsatour.com) 후원 대한항공 한진관광

서울 02)730-0202 부산 051)245-0108 대구 053)572-0108 대전 042)583-0108 광주 062)361-0108

일자	출발/도착	교통편	시간	주요 행사 일정	식/사
제01일	인천 양곤	KE전세기	19:00 22:35	인천 국제공항 집합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양곤 도착 후 호텔 투숙	중 중 석
제02일	양곤 파간	국내선	06:30 07:50	HOTEL TRADERS HOTEL CLASS 아침공양후 국내선으로 파간 이동 2,500여개의 불탑파노라마 관광-세지곤파고다, 아난다사원, 마누하사원, 부파파고다, 예신도파고다, 이라와디강 석양강상후 호텔투숙	중 중 석
제03일	파간 만달레이 사가잉 만달레이	국내선	08:45 09:15	HOTEL THARABAR GATE HOTEL CLASS 아침공양후 공파왕릉의 만달레이 이동 만달레이의 마누하사원, 왕수도원, 만달레이의 순례 사자잉 이동후 선우봉아산, 우만봉제파고다 순례 만달레이 귀환후 호텔 투숙	중 중 석
제04일	만달레이 양곤	국내선	09:30 11:05	HOTEL MANDALAY HILLSRESORT CLASS 아침공양후 양곤 이동후 보카찬다국물사, 차록및파고다, 칠업 굴 및 제비파고다(전신사리 환진/영대불사 봉행) 이용산마켓 견학 저녁공양후 호텔 투숙	중 중 석
제05일	양곤	전용차량 KE전세기	23:35	HOTEL TRADERS HOTEL CLASS 아침공양후 생에다곤파고다, 마하시수도원 순례 이용산기념탑 경유 양곤 출발	중 중 석
제06일	인천		07:35	HOTEL 기내식 인천국제공항 도착후 해산 *정물하십시요*	중 중 석

일자	출발/도착	교통편	시간	주요 행사 일정	식/사
제01일	인천 양곤	KE전세기	19:00 22:35	인천 국제공항 집합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양곤 도착 후 호텔 투숙	중 중 석
제02일	양곤 해호	국내선	15:30 16:40	HOTEL TRADERS HOTEL CLASS 호텔 조식후 세다곤파고다, 아용산기념탑 경유 예신도파고다, 로카찬다 국물사, 해호 이동 석식후 호텔 투숙	중 중 석
제03일	해호 파간	전용차량 국내선	17:05 18:35	HOTEL HUPPIN HOTEL CLASS 호텔 조식후 인피라와 수상시장 및 수상경치지 외발노룻기 관광 판도우파고다, 인명유적지 관광 파간 이동후 호텔 투숙	중 중 석
제04일	파간 양곤	국내선	18:55 20:15	HOTEL THARABAR GATE HOTEL CLASS 호텔 조식후 2,500여개의 불탑파노라마 관광-세지곤파고다, 아 난다사원, 마누하사원, 부파파고다, 예신도파고다 양곤 이동후 호텔 투숙	중 중 석
제05일	양곤	전용차량 KE전세기	23:35	HOTEL TRADERS HOTEL CLASS 호텔 조식 후 칠업굴 및 개비파고다 관광 차록및파고다, 아용산마켓 관광 양곤 출발	중 중 석
제06일	인천		07:35	HOTEL 기내식 인천국제공항 도착후 해산	중 중 석